

지리산 공립 등산학교 MOU

남원시·9개 유관기관, 공모사업 선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남원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산림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산악연맹, 남원시 산악

연맹, 대한속박업중앙회, 한국농식품중앙회(이하 9개 유관기관)와 '남원지리산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가 산림청이 공모 중인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9개 유관 기관과 함께 △남원지리산 공립등산학교 유치 공조 △안전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관내 학생 교육 제공 등 체계 구축 △산악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구호활동 체계 구축 △등산지도사 양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공모사업 유치 추진에 나선다.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시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예산 80억원(국비 40, 도·시비 40)을 들여 운봉을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에 인공암벽경사장, 강의실 등 공립 등산학교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에 추진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공모사업에 총력 대응하는 등으로 민관의 영산 지리산에 반드시 공립 등산학교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등 9개 유관기관과 '남원지리산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2024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5건의 안건 심의·의결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재연 보육정책위원장(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남원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남원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농어촌지역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대상 선정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남원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를 비롯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사회(회장 김용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제역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려 6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최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재연 보육정책위원장(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보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보육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김재연 위원장은 "매년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

황에서 보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팔덕면,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 성료

순창군 팔덕면은 지난 24일 팔덕초등학교 운동장 일원에서 제11회 팔덕면 달집태우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애항운동본부 팔덕지회(회장 김용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제역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려 6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최

영일 군수, 신정이 군의회 의장 등 내빈을 비롯해 팔덕면민 3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서 팔덕면 농약회의 풍물공연, 소원성취문 달기,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례 및 제배 등의 사전행사가 차례로 진행되며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

의 취지를 더했다. 이어, 어둑해진 일몰시간에 맞춰 높이 10여미터 규모로 대나무와 짚풀 등을 쌓아올린 대형 달집태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소원이자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장관을 연출하자 지역민들은 환호성을 지아내며,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착착

임실군, 영농철 농촌일손을 위해 총 203명 증가추세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일손 효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첫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16명(베트남 10명, 캄보디아 4명)으로 3월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청으로 먼저 입국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가에 배치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고, 국내 인력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도입 첫해인 2022년 54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83명에서 올해 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군은 올해 입국하는 203명의 계절근로자는 숙련된 계절근로자 재조정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선발했으며, 공

근로자 173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국한 16명은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영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공동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기숙사는 시설 연면적 1,350㎡에 2인 25객실과 휴게실, 공동주방 등을 갖춘 예정이다. 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심 민 군수는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남원시는 26일,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패스파인더비컴·양코르브라노도 사회적협동조합·㈜제이원더·㈜팔렌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패스파인더비컴, 생활인구 유치 협약 체결

남원시는 26일,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주)패스파인더비컴·양코르브라노도 사회적협동조합·(주)제이원더·(주)팔렌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생활인구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 방치된 폐교를 매입해 남원 살아보기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민간기업과 협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목

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지역자원 공동개발, 시설관리·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현재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 정책일일 서비스 제공 및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살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과 손을 잡고 준비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재전순창군향우회

정기총회·신년인사회 개최

재전순창군향우회(회장 김용수) 정기총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24일 오후 6시 전주 알펜시아컨벤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재전 향우회원과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간부공무원,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 한마음이 모여 고향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1부 정기총회와 2부 신년인사회로 이어진 행사는 회계 감사·결산보고, 경과보고, 장차금전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이사, 김관수 호남제일고등학교 이사장, 황의중 전북고속 대표이사, 황의욱 순창군아너스클럽 회장이 고향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함께 기부해 큰 환호를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모기 유충 선제적 방역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모기 유충구제와 매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말일까지이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밀폐된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고인 물 등에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등 집중 방역을 할 계획이다. 유충구제란 앞에서 나온 후 덜 지난 벌레를 약품을 사용해 사멸하는 방식으로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는 것은 성충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성충구제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모기 개체 수 감소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

남원시보건소는 집주방 옹돌이, 배수로, 하수구, 정화조, 물이 고인 소화천 등의 모기 서식지를 시민들로부터 신고받아(620-7988) 신속한 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